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한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7
4	讲义	54
5	퀴즈	74
6	보고서	78
7	자료	80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이 강좌의 목적은 북한경제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이 관찰된다.

이 강좌에서는 먼저 북한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대북제재, 생활수준 등을 주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북한 경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경협,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이다.

02

학습목표

- (1) 북한경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오늘날 북한경제의 실태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3) 북한경제 및 통일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설명할 수 있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 여러분은 북한경제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오늘날 북한경제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앞으로의 북한경제, 그리고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해
2주차	해방 직후~1960년대의 북한경제
3주차	1970년~1990년대의 북한경제
4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경제개혁
5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시장화
6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대외경제관계
7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산업
8주차	대북제재
9주차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10주차	북한의 인구변동
11주차	남북경제협력
12주차	통일한국의 경제: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5

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시장화

5-1

시장화의 배경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제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섯 번째 강의로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시장화'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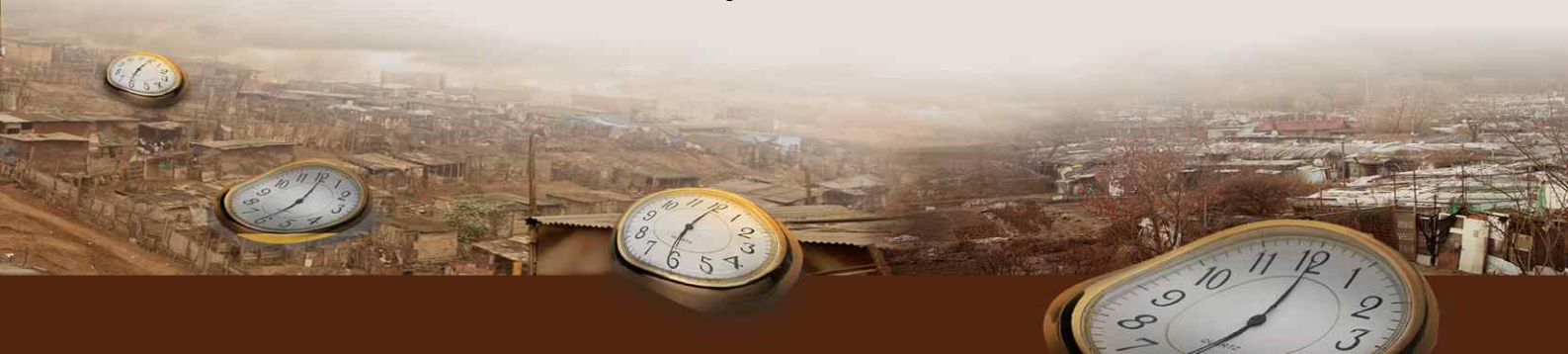
지난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2002년 7.1 조치와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과정에서 기업 부문에서 이루어진 개혁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 기업 부문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내용을 살펴본 뒤에는 이를 중국 초기 개혁 사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개혁 수준은 여전히 중국의 초기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바꿔 말하면 북한의 경제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개혁과 시장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강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북한 시장화의 배경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2000년대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상을 살펴본 뒤, 김정은 시대 시장화의 내용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화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사이 북한경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핵심은 시장화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화란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화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재시장,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양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확산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형성된 가격에 근거해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현상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고수해 온 계획경제 시스템, 즉 국가가 경제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행하는 시스템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여 년 사이 시장화의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북한에 시장은 존재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농민시장'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시장은 열흘에 한 번씩 열렸는데, 농민들은 텃밭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 옥수수과 같은 식량은 거래할 수 없었고, 공산품 거래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거래에 제한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는 농민시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대한 암시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도 이를 '장마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여 식량과 각종 생필품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져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경사지 등을 개간해서 짓는 소토지 농사를 통해 생산한 농작물을 팔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먹을 것을 만들어 파는 주민도 많았고, 심지어 직장에서 물건을 훔쳐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이러한 여러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나서는 과정에서 시장 활동이 활발해진 것입니다.



앞서 농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에는 제한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생필품 배급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거래 품목에 대한 통제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식량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내구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들이 거래되게 됩니다.

또한 농민시장 이외의 지역, 예를 들어 주민 왕래가 많은 도로 주변이나 주택가와 같은 곳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열흘마다 열리던 시장이 매일 열리는 등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대체로 묵인하게 됩니다. 배급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시장화 과정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타난 북한의 시장화 양상은 오늘 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화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0년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2

2000년대 북한의 시장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시장화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2002년 7.1 조치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1 조치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던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공식 부문에 일부 수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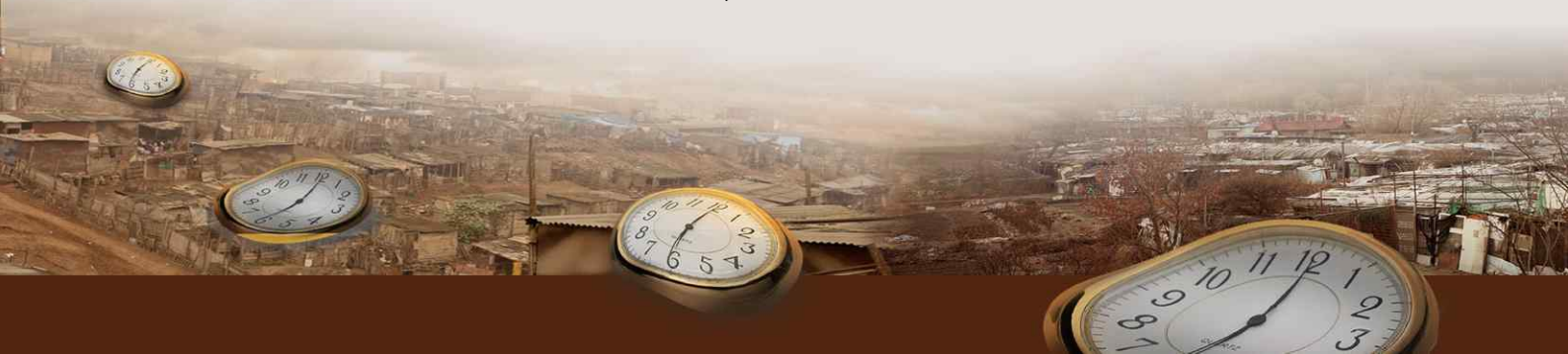
예를 들어, '번 수입'지표 도입으로 기업이 계획과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 북한 최초의 생산재 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 3월 소비재시장인 종합시장을 도입한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암시장으로 변해 다양한 소비재가 유통되고 있던 농민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합법적으로 소비재를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합법화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운영되던 시장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묵인하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합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인 상황에서는 묵인해 주다가 정권에서 언제 갑자기 그것을 문제 삼아 처벌할지 모르니 사람들이 내내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시장 부문이 성장하는 데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종합시장이 도입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을까요? 우선 상업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장사를 통해 돈을 벌어 자본을 축적한 '돈주'라는 계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종합시장 출현 이전에도 장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은 출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돈주'계층이 본격 출현하게 되는 것은 종합시장 도입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주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도 발전하게 됩니다. 모두 공식적인 형태의 시장이 출현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초보적인 임노동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출현하고 사금융이 발달하게 됩니다.

임노동자가 출현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돈주와 같은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식당과 같은 상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점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생길 수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국가에서 노동력을 배치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수요도 발생했습니다.

또 국영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잉여인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 등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방법이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8·3 노동자 등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임노동자로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수요와 공급이 형성되고, 비공식적으로 임노동자의 고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점 주인이 일당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0년대까지는 이러한 형태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금융을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도 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장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돈주'라는 계층이 형성되었고, 이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사금융이 발전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7.1 조치를 전후한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어서 성장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화 양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달라지게 됩니다. 2007년부터는 시장을 촉진하는 것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된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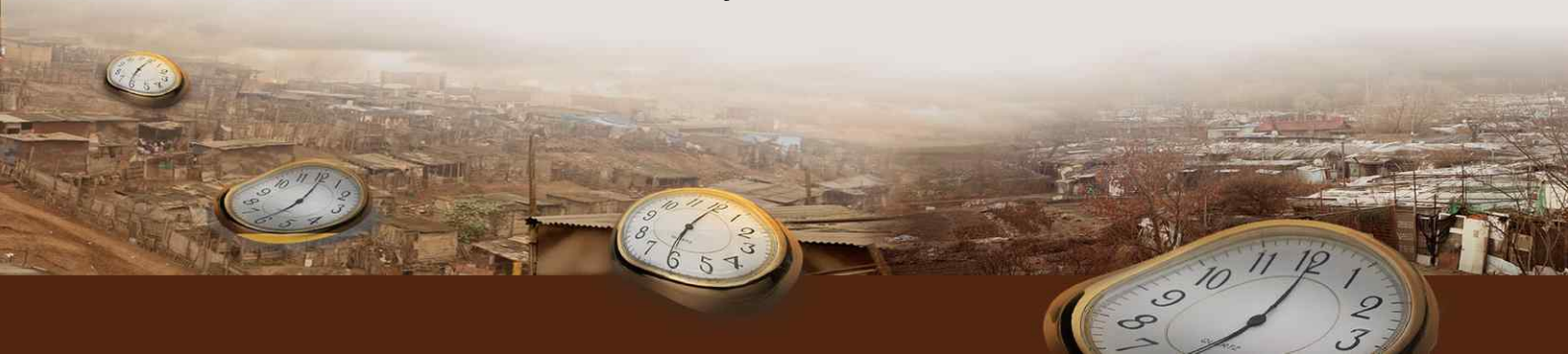
4주차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7·1 조치 등의 경제개혁은 내각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노동당의 반발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또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기존 사회주의 질서가 동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입니다.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종합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연령을 제한한다거나, 장사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장사 품목을 제한하는 등 다양했습니다. 또 검열이 강화되어 돈주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돈주들이 벌이는 다양한 비공식 경제활동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2009년 11월 이루어진 화폐개혁도 시장 억제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화폐개혁은 그 여파가 특히 컸던 사건인 만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기존 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도록 했는데, 교환 금액에 한도를 두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피해를 볼까요? 아무래도 돈주와 같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주들이 보유한 현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시장 부문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어서 2010년 초에는 종합시장을 다시 농민시장으로 되돌린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부르는, 외화통용 현상이 북한 내에서 크게 확산됩니다. 화폐개혁으로 갑자기 돈주들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보자, 북한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북한 원화 대신 달러화나 위안화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은 크게 상승하고 북한 원기준 물가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림은 북한 평양 지역의 쌀가격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3년간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해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게다가 국영기업들도 생산에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영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돈주 자금을 사용해 왔는데 화폐개혁으로 인해 그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 당국이 시장 억제정책으로 추진했던 화폐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시장 억제정책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3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000년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시대 시장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시장화를 소비재, 생산재, 노동, 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발전하는 것과 시장 메커니즘이 확산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상품시장이 크게 팽창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소비재시장인 종합시장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10년 초, 그러니까 북한에서 시장 억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 미국의 한 미연구소(USKI: U.S.-Korea Institute)라는 연구기관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았더니, 북한의 종합시장은 200여 개 관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제가 속해 있는 통일연구원에서도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해 보니, 종합시장이 400개 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 한미연구소가 다시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았더니, 종합시장은 최소 482개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8년 사이 종합시장 수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은 2016년 기준으로 도별로 시장이 몇 개나 있는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평양, 남포와 같은 대도시에는 20개~30개의 시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역에 시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장도 성장했습니다.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 물자의 이동 수요가 늘어나 운송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상황입니다만 평양 옆에 있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평안북도 신의주, 자강도 강계, 양강도 혜산, 함경남도 함흥 등 전국의 모든 도 소재지 도시로 향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택시 등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씨비차'라고 불리는 불법적인 운송서비스가 출현했고, 2000년대부터 이러한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와 같은 교통서비스가 등장했는데, 2010년대 들어와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물자 이동 수요가 늘어난 만큼, 트럭 운수업도 성장했습니다. 2010년대 북한에서 트럭을 비롯한 화물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운수업의 성장세를 잘 보여줍니다.

앞서 민간 사업자들이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개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택시 등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북한에서 사기업의 설립이 허용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경제개혁에 대해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개인이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택시 운행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개인이 택시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수단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 이를 기관이나 기업에 등록합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기관이나 기업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기업에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를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사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합법성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은 일종의 세금을 수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서비스 시장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대 북한에서 TV,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 제품의 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기기를 수리하는 업종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거래가 늘어나 부동산 중개업자도 등장했다고 하며, 사교육 시장도 커졌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성행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표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사경제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중 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항목만 모아 놓은 것입니다. 2007년~2012년 조사 결과와 2013년~2015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서비스 부문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에 적을 걸고 식당이나 미용실,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응답을 보면, 2007년~2012년 조사보다는 2013년~2015년 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모두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관리소에 적을 걸고 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응답 비율은 14.7%에서 50.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급양관리소로부터 건물을 빌려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매우 많았다는 응답 비율은 30.3%에서 48.1%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관리소에 적을 걸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는 개인 소유의 기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여러 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 적을 걸어 놓았다는 것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주의 모자'를 씌운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돈주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주들은 국영기업의 명이나 자산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명의만 빌리는 것으로, 관리소에 적(籍)을 걸어 놓는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업의 산하 기업으로 국가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회주의 모자' 또는 '붉은 모자'를 쓴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의 생산수단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일정한 금액을 내고 빌려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명의와 생산수단 모두를 빌려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국영기업은 명의나 생산수단을 빌려주는 대가를 받습니다. 돈주는 '사회주의 모자'를 써서 합법성을 획득하고, 기업은 생산 부진으로 인해 여차피 사용하지 않는 생산수단이나 명의를 빌려주고 자금을 확보하는, 돈주와 기업 간에 일종의 윈-윈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 돈주의 사경제 활동 규모가 커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다소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김정은 시대 시장화의 진전에 대한 논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소비재,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노동시장과 금융시장도 더디긴 하지만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먼저 노동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노동자를 직장배치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1 조치 이후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이처럼 사경제 부문에서 비공식적인 노동시장이 성장해 갔습니다.

이 표는 앞서 보여드린 표와 마찬가지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임노동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 시대 임노동 고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의 질문에, 매우 많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7년~2012년 16.5%에서 2013년~2015년 35%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봉사시설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 매우 많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7년~2012년 18.3%에서 2013년~2015년 30.6%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시장을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도 사금융을 중심으로 비공식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담보 없이 높은 금리로 소액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담보 대출도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입사증이나 생산수단 등을 담보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비공식적인 형태로 사유화가 진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출이 보다 체계화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 여부와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규모나 금리 등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담보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금융 부문에서 하나 주목할 변화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 상업은행이 설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20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역할도 했는데, 이 법을 도입하여 상업은행을 별도로 설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만 만들었고 실제 상업은행이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5년 무렵부터 북한에서 상업은행이 설립되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만도 30~40개의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상업은행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금융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계속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의 시장 부문이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당국이 시장 부문을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시장화는 아래로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당국이 시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앞서 2000년대 후반 북한 당국이 시장 억제정책을 펴자 시장 부문이 위축되었는데, 이처럼 당국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제재 영향이 심화되기 이전까지는 시장화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할 만큼, 이전에 비해 시장화를 적극 용인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지난 강의에서 기업소지표 도입이나 현금 돈자리 개설 허용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당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던 시장을 활용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직접 시장 부문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이 무선통신 사업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저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입해 주민들에게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대규모 수익을 얻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이 벌어들인 수익이 6억~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시대 들어와 국가가 '북한판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금별 상점'이나 '창광상점'과 같은 대형마트를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러한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시장 부문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던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 부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경제에서 시장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부문 중 일부를 공식 부문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하나, 재정적인 측면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가 무선통신이나 유통 분야에 뛰어든 것은 국가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장 부문 중 일부를 공식 계획 부문에 편입시킨 것은 과세 대상을 확보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공식 부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공식 영역이 계속 확대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를 위해 이들을 공식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북한은 재정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의 시장 부문이 성장한 이유 중 하나인, 북한 당국이 시장 부문을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요인으로 대외무역의 확대라는 측면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외무역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외무역 확대가 시장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의 무역 규모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역 규모 확대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 부문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수출이 늘어나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주민들의 구매력이 향상되어 시장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수입 증가를 보겠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시장에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좋지 않고 제품이 다양하지도 않기 때문에, 수입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이 늘어나면 시장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김정은 시대에는 수입 증대로 인해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화물자동차나 휴대전화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201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수입이 증가했다는 것은 운수업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람과 물자 이동이 원활해지고, 전국 시장의 통합이 촉진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휴대전화가 보급됨에 따라 시장 관련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게 되는데, 이는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의 시장 부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시장 부문이 성장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부문은 북한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북한에서 시장과 계획 부문이 혼재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가운데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시장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주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보편적으로 비공식 소득이 공식 소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왼쪽 그림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탈북하기 직전 시기 북한에서 자신이 받았던 공식 소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즉 국가가 배치해 준 직장에서 매월 얼마를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비공식 소득, 그러니까 국가가 배치해 준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 매월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물어본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가 배치해 준 직장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13년 이후 50%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 상당수도 공식 소득이 북한 돈으로 5,000원 이하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북한 돈으로 5,000원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잘 모르실 텐데, 북한에서는 쌀 1kg이 5,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5,000원은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북한 주민 대부분은 공식 부문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 기업의 임금 수준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일부 기업은 임금을 수십 배 인상하여 현실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당수 기업에서는 여전히 생활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수준의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8·3 노동자 등의 형태로 기업에 돈을 내고 외부로 나가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여성들이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북한 이탈주민 중 70%가 북한에서 장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경제 활동은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처럼 장사와 같은 사경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비공식 소득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나타낸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연도별로 좀 편차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거나 1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략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0%~70% 정도입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2010년대 북한 주민들은 소득 대부분을 비공식 부문에서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첫째, 배급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공식 부문 소득에는 배급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5,000원과 쌀 10kg을 받았는데,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5,000원 받은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식 소득이 과소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공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8·3 노동자였거나, 부양, 즉 가정주부로 있었던 사람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고 공식 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여기 제시된 표에는 그러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역시 공식 소득 수준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식 부문에서 안정적인 지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보다 비공식 부문에 주로 종사해온 사람이 탈북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와 경제력을 보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탈북할 유인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북한 이탈주민 조사 결과에서 비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사경제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여성이며, 중국 물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 이탈주민 조사에서 나타나는 공식·비공식 소득 구성은 비공식 부문의 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쪽으로 다소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감안해도 북한 주민들의 소득에서 비공식 부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계 소득 중에서 비공식 부문이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북한 국내총생산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북한에서는 국내총생산 중에서 행정, 국방, 치안, 교육, 보건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국영기업 투자 활동도 주로 공식 부문에 속한다는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은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장 부문은 북한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면,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계획 부문이 여전히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2020년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경제는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7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북한의 시장화 추세도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영향이 컸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충격까지 발생하여 중국 소비재 수입도 크게 줄어들고, 시장 활동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강화되자 시장 부문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과 같은 수준으로 시장을 억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북한경제에서 시장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진 것과 일부는 공식 부문으로 편입되기도 한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되돌리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할까요? 제재가 지속되어 대외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 당국이 현재와 같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시장화 역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시장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반과 심지어 공식 계획경제 부문에도 시장이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기에, 이러한 흐름을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장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4 시장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서 시장화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중간에 잠시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종합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유희 인력과 설비 활용, 주민 생활 안정화, 재정수입 증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할까요?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재화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되고, 상품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상품이 배분될 것입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국가가 계획에 근거해 자원을 배분하는데 국가가 지닌 정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자원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화가 진전되면, 가격 메커니즘의 작동에 의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이 발달한 오늘날의 북한도 과거에 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 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유희 인력과 유희 설비,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주었습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의 공식 경제 부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영 부문에 대규모의 유희 인력과 유희 설비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화가 진전되고 사경제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유희 인력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희 설비가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소득 증대나 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3 노동자도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유휴 인력이 사경제 활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또 돈주가 국영기업의 생산시설을 빌려서 생산하는 경우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 시장화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 중 상당수는 공식 직장에서 생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을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회보장 시스템 역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도 노령연금이 지급되지만 몇백원 수준입니다. 쌀 1kg이 5,000원임을 감안하면 노령연금이 얼마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주민들은 사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국가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부문의 확대는 국가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현대식 마트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시장 부문을 공식 계획 부문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도 재정과 관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공식 부문에 놔두면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점차 공식 부문으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도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안정화에 적잖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에서 장세라고 불리는 시장사용료, 자전거나 짐을 보관해 주는 보관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세입이 됩니다.

장세에 대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 시·군인민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에 내는 장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매대라고 불리는 판매할 자리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큼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게 되면 매일 자릿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매대 규모, 위치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에 따라 내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6년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전국 400여 개의 시장에서 장세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1년에 최대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북한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제 5주차 강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장화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고 팽창하는 현상이자,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난 20여 년 사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2000년대 시장화의 전개 과정입니다. 원래 북한에도 '농민시장'이라는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에 한 번씩만 열렸고, 거래되는 품목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농민시장은 거대한 암시장으로 바뀌고, 거래 품목도 다양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배급이 끊긴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경제활동에 나서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7.1 조치 이후인 2003년 농민시장은 합법적 소비재시장인 종합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본을 축적한 '돈주'라는 계층과 초보적인 '임노동자'도 출현했고, 사금융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은 비공식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정책 기조는 시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반발과 사회주의 질서의 동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시장 활동에 대한 제약이 이루어졌고, 2009년에는 돈주를 견제하기 위해 화폐개혁도 실시됩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인플레이션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장 억제정책도 철회됩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종합시장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각종 서비사업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다만, 돈주들은 개인 소유기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명이나 자산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사경제 활동 규모가 커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도 더디긴 하지만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임노동 고용이 보다 많아졌고, 사금융은 체계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상업은행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의 시장 부문이 성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북한 당국이 시장 부문을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대외무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어서 북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시장과 같은 비공식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계획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2017년 이후 북한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북한 당국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북한의 시장화 추세도 주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시장화라는 흐름은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유헴 인력과 유헴 설비,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고, 넷째는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환 교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를 살펴보는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북한의 무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북한경제에서 대외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만큼,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한 학습은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5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Marketization

5-1 Background of Marketization

Hello. I am Hong Jea Hwan and will deliver the lecture series called Past and Present of North Korean Economy. This is the fifth lectur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since the 2000s: Marketization'.

In the last lecture, we looked at North Korea's economic reforms since the 2000s. We mainly discussed the corporate reform measures in the July 1 Measures in 2002 and the economic reform in the Kim Jong-un regime and confirmed there were many changes since the 2000s.

After examining North Korea's economic reforms since the 2000s, we compared them with China's early reforms. We could see that the level of North Korea's reform is not up to that of China's initial reform, in other words, it still has a long way to go.

Today, I will discuss North Korea's marketization since the 2000s. As I mentioned in the last lecture, economic reform and marketization are closely linked. Therefore, let me tell you first that there may be some overlap with the last lecture.

This lecture proceeds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 will look at the background of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Next, I will examine the marketization in the 2000s, and explain the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marketization in the Kim Jong-un regime. Lastly, I will conclude the lecture by examining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Over the past 20 years,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And I can say that the key was marketization. So, what kind of change does marketization bring? I think I should start the lecture by talking about this.

Marketization can be defined in two ways. First, it is a phenomenon that various types of markets such as consumer goods markets, production goods markets, labor markets, and financial markets are formed and quantitatively expanded.

Second, it means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market mechanisms. In this mechanism, prices are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nd economic agents make decisions based on these prices and adjust resource allocation. This mechanism spreads throughout the economy. In the planned economic system, the state makes all economic decisions. This system that North Korea has been adhering to is weakening.

North Korea has experienced major changes in both dimensions of marketization over the past 20 years. In fact, even before that, markets existed in North Korea. The farmer's market has existed officially since the late 1950s.

This market was held once every ten days, and farmers could sell the crops from their gardens at market prices. But you could not trade food such as rice and corn and manufactured goods.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on trading in the market.

However, in the 1990s, the farmer's market began to change. It turned into a huge black market. North Korean people started to call it 'Jangmadang'.

This change was caused by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s planned economic system literally collapsed during the North Korean Famine and the rationing of food and various daily necessities stopped. Residents had to make a living, so they sold items in their homes or crops they grew on a small farm which they illegally made by clearing slopes.



Many people sold food they made, and some even stole and sold things from the workplace. Market activities became active as resid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 various ways to survive.

I mentioned that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on the items that could be traded at the farmer's market. However, after the state became unable to distribute daily necessities, control over trade items became meaningless. So, the market started to trade not only food but also various items such as daily necessities and durable consumer goods.

In addition, you could spot trades in areas other than farmers' markets, such as areas near roads with high traffic and residential areas and markets became open every day instead of every 10 days.

The North Korean regime tolerated this because it had no choice in a situation where it could not properly distribute food. From this point of view, I can say that 'marketization from bottom to top' was very important in North Korea. And the pattern of marketization continues to this day.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marketization. After a break, we will discuss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n the 2000s.



5-2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n the 2000s

Hello again. So far, w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marketization. Now, we will discuss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n the 2000s.

We talked about the 7.1 Measures in 2002 in the last lecture. The 7.1 Measures embraced some practices of the 'marketization from the bottom' into the official system.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earned income' legally allowed companies to produce and sell products outside the plan in the market. Socialist Goods Exchange Market, North Korea's first market for production materials, opened.

Also, the opening of the general market for consumer goods in March 2003 is a very important change. This officially admitted the farmer's market, which had turned into a black market where various consumer goods were traded, and allowed people to trade consumer goods.

You may wonder whether legalization is such an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these changes. In fact, legalizing a market that has already been operated will not bring immediate change.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what is done informally with the connivance and what is officially permitted. In particular, legalization is very important in a society like North Korea where the situation can change with one word from the leader. People would have been anxious all the time when the market was illegal because they don't know when the regime would punish it, and this can negatively affect the growth of the market.



Then, what specific changes took place when the general market opened? First, as commercial activities became more active, a class called 'Donju', who accumulated capital by earning money through trade, was formed.

Even before the advent of the general market, people who accumulated capital through business must have appeared. However, the 'Donju' class began to appear clearly after introducing the general market. I will talk about 'Donju' again later.

When market activities become more active, the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also develop. A market did not open officially in these sectors. Instead, wage laborers in the beginning level, workers who receive wages, appeared and private finance developed.

Let me start with the wage workers. As commercial activities flourished, shops such as restaurants informally run by Donju began to appear. When you run a store like this, you need to hire people. But these were informal places, so the state did not assign labor. As a result, labor demand was generated.

Back then, state-owned enterprises did not operate normally, resulting in surplus manpower. Manpower can be reduced through layoffs and other methods, but this is not possible in North Korea. So, they became the 8.3 Workers I explained in the last lecture. Some of them were supplied to the informal labor market as wage workers.

In this way, labor demand and supply were formed, and wage workers were hired informally. The store owner hired people for a daily wage. However, this type of employment did not increase significantly until the 2000s.



Now, let's look at private financing. There will come a time in your life when you need a loan. You may also need a loan to do business. But in North Korea, people can not get a loan from a bank. However, those who accumulated capital through business formed a class called 'Donju' in the marketization, and it became possible to borrow money from them informally. Private finance developed in North Korea from this period.

To sum up, from the time around the 7.1 Measures, North Korea witnessed the growth of the production goods market, the consumer goods market, the labor market, and the financial market. The labor market and the financial market were not officially permitted, so there were restrictions on growth, but the formation of these markets was a significant change.

However, the marketization pattern changed after the mid-2000s. The regime changed the policy direction from promoting the market to restraining the market in 2007. Why did the policy direction change?

As I mentioned in the 4th lecture, the cabinet led economic reforms such as the July 1 Measures. The Workers' Party showed growing opposition to this. In addition, voices of concern about the side effects of the reforms have grown. The reform inevitably shakes the socialist order, and dissatisfaction has grown.

Policies to restrain markets have taken many forms. There were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limiting the age of traders in general markets, limiting trading hours, or restricting trade items. In addition, censorship was strengthened to give punishment to Donju. It took issue with various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conducted by Donju.

The currency reform in November 2009 was one of the market restraint policies. The currency reform had a particularly large aftermath. Let's take a closer look.



The North Korean regime made people exchange the old currency for new currency during the currency reform, but there was a limit on the exchange amount. Then, who will suffer the most? They must be people who have a lot of money, like Donju.

This significantly reduced the cash held by the Donju, which inevitably reduced activities in the market sector. In early 2010,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revert the general market back to the farmer's market.

How was the result? The phenomenon of using foreign currency, called dollarization, spread greatly in North Korea. Seeing the sudden encroachment on the property of Donju through currency reform, distrust of North Korean currency grew, and people preferred to hold dollars or Chinese yuan instead of North Korean won.

As a result, the value of the North Korean won dropped sharply, the dollar's exchange rate against the won rose drastically, and the prices rose rapidly. The graph shows the rice price in Pyongyang, North Korea, and you can see a steep rise for three years from 2010 to the end of 2012.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recognized the problem and took mitigation measures, but the aftermath continued for quite a long time.

In addition, the production of state-operated enterprises was seriously affected. State-owned enterprises were using Donju's money due to a lack of funds, but currency reform made it difficult.

So, the currency reform promoted as a market restraint policy ended in failure. The North Korean regime withdrew the market restraint policy in May 2010.

So far, we have discussed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n the 2000s. After a break, we will look at marketization under Kim Jong-un's rule.



5-3

North Korea's Marketization in the Kim Jong-un Regime

Hello again. So far, we have discussed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n the 2000s. Now, we will look at marketization in the Kim Jong-un regime.

First, I will discuss how marketization developed in the Kim Jong-un regime. Earlier, I divided marketization into two categories: the development of various forms of markets, such as consumer goods, production goods, labor, and finance, and the spread of market mechanisms. In the Kim Jong-un regim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both aspects.

First, the commodity market has expanded significantly. A good example is the expansion of the general market, the consumer goods market. In early 2010, when the market restraint policy was implemented in North Korea, a research institute called the US-Korea Institute (USKI) analyzed satellite images and found that there were about 200 general markets in North Korea.

In 2016,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where I belong, analyzed satellite images and found that there are more than 400 general markets. In early 2018, the US-Korea Institute (USKI) analyzed satellite images again, and there were 482 general markets or more. Over the past eight years, the number of general markets has more than doubled.

The figure on the screen shows the number of markets in each province as of 2016. You can see there are 20 to 30 markets in large cities such as Pyongyang and Nampo. You can also see that many markets are in North and South Pyongan Provinces and North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which have a relatively large population.



The service market has also grown. As marketization progressed, demand for the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increased, and the transportation industry grew rapidly. Private businesses operate intercity bus routes and they are spread nationwide. For example, in 2013, buses were running from Pyongsong in South Pyongan Province, which is located next to Pyongyang, to Sinuiju in North Pyongan Province, Ganggye in Jagang Province, Hyesan in Yanggang Province, and Hamheung in South Hamgyeong Province.

Along with this, the number of privately operated city buses and taxis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arly to mid-1990s, an illegal transportation service called 'Servi-cha' appeared. From the 2000s, such transportation services as intercity buses, city buses, and taxis appeared, which expanded greatly in the 2010s.

In addition, as the demand for moving goods increased, the trucking industry has also grown. In the 2010s, imports of trucks in North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which also shows the growth of the transportation industry.

I already mentioned that private businesses are operating intercity bus routes, and the number of privately run city buses and taxis has also skyrocketed. So, is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companies allowed in North Korea? No. We already discussed that point in the last lecture on economic reform.

Then, how could an individual do these activities? Let me take the taxi operation as an example. You buy a taxi. But, the means of production cannot be owned by individuals, so you register the taxi under the name of an institution or a company. Officially, the taxi is owned by an institution or company. Now, you pay a certain amount to the company and operate the taxi.



This is called 'wearing a socialist hat'. Through this, individuals secure the legitimacy of conducting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companies receive a kind of tax. Many individuals do business in this way in North Korea.

Now, let's talk about the growth of the service market. In the 2010s, imports of TVs, refrigerators, and other home applianc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North Korea. As a result, the electronics repair industry seems to be growing as well. Also, real estate brokers have appeared as housing transactions have increased, and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has also grown. There are also testimonies that delivery services using motorcycles are widespread. Various service markets are growing besides these.

The table shows service sector items only extracted from the survey on private economic activities conduct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f you compare the 2007-2012 survey with the 2013-2015 surveys, you can see the services sector is growing.

If you look at the response that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ran restaurants, beauty salons, or lodging businesses by registering with the management office, you can see that positive answers increased in the 2013-2015 surveys compared to the 2007-2012 surveys.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aid that many were running a restaurant at home by registering with the commercial management office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14.7% to 50.6%.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aid that many were running restaurants by renting buildings from the food and clothing office rose from 30.3% to 48.1%.

Here, you can see the expression 'by registering with the management office'. You may not understand what it means. As mentioned earlier, a private person cannot own a business in North Korea. That's why people employ various expedients to do business or run shops.



Registering with the management office is one of the expedients. It's similar to the example of 'putting on the socialist hat' explained.

In the meantime, let me talk a little bit about the way the Donju run their businesses.

Donju often does business using the name or assets of state-owned enterprises. First, Donju can borrow the name only. This is registering with the management office. Then, a business is registered as an affiliated company to the state. This is called 'putting on the socialist hat' or 'red hat' as I mentioned before.

Second, Donju can borrow production means from state-owned enterprises. Donju borrows equipment that a company does not use at a certain amount. In some cases, Donju borrows both the name and production means.

Of course, state-owned enterprises receive payment for lending names or production means. This is a win-win relationship between Donju and companies because Donju acquires legitimacy by wearing a 'socialist hat', and companies receive money by lending their name or production means that they do not use due to sluggish production. The thing is, it is limited for Donju to grow their private economic activities in this way.

I strayed from the topic. Let me go back to the discussion on marketization in the Kim Jong-un regime.

In the Kim Jong-un regime, not only the consumer goods and service markets but also the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have grown, albeit at a slower pace. Let's look at the labor market first.



The labor market cannot exist officially in North Korea, because the state allocates labor force and guarantees employment. As mentioned earlier, an informal labor market was established after the 7.1 Measures. In the Kim Jong-un regime, the informal labor market grew in the private economic sector.

This table shows how active the wage labor is based on the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like the previous table. You can see that wage labor has become more active in the Kim Jong-un regime.

To the question of how many people received money for helping others in their field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nswered "very many" more than doubled from 16.5% in 2007-2012 to 35% in 2013-2015. To the question of how many people worked at convenience service facilities operated by individual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nswered "very many" rose from 18.3% in 2007-2012 to 30.6% in 2013-2015.

Now, let's look at the financial market. The financial market has also grown, centering on private finance. In the past, small loans were made at high-interest rates without collateral, but mortgage loans were also made by the Kim Jong-un regime. It became possible to use the housing card or production means as collateral because the privatization progressed informally.

Also, the loans became more systematized. For example, the amount or the interest rate becam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llateral and its value. This naturally happened as mortgage loans became available.

One noteworthy change in the official financial sector is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banks in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enacted the Commercial Bank Act in 2006. Before that, the central bank also acted as a commercial bank, but this act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banks.



However, only a system was built and actual commercial banks were not established. Around 2015, commercial banks began to be established in North Korea. It is known that about 30 to 40 commercial banks are operating in Pyongyang alone, but they are not being used much. However, 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trying to activate the official financial market, we need to keep an eye on it.

Why did the market sector grow in the Kim Jong-un regime? Various factors may have influenced it. Now, let's look into two factors that seem the most important.

Fir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ctively embraced the market sector. As mentioned earlier, North Korea's marketization has been promoted from the bottom, but the government's stance on the market is also very important. In the late 2000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market restraint policy and the market sector shrank fast.

The Kim Jong-un regime used to take a gentler stance on marketization until the sanctions intensified. Then, of course, it would have considered something other tha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ystem. Still, the Kim Jong-un regime actively embraced marketization compared to before, and some even assesse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leading marketization.

There was good reason to believe so. First, I mentioned the introduction of business indicators and the permission to open cash accounts in the last lecture. These were official permission for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companies in the market, which had been conducted with the connivance of the government.



The North Korean regime is also directly involved in the market sector and earns profits. A typical example is that the government led the wireless communication business and made huge profits by importing low-cost mobile phones from China and selling them to people at high margins. A study estimate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arned between \$600 million and \$900 million through this.

In addition, the Kim Jong-un regime started to operate 'Golden Bee Store', a North Korea-style convenience store, and 'Changgwang Mart', a supermarket, in a market economy method.

Why wa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o active in embracing and utilizing the market sector? We can think of two aspects.

First, embracing the market sector was inevitable. The importance of the market sector in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grown too much.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 not intend to give up the planned economic system officially. As a result, it made a compromise by incorporating some of the market sectors into the official sector while maintaining the planned economic system.

Second, it may have considered the financial aspect. As seen earlier, the regime entered the wireless communication or distribution industry to earn revenue through sales. It can also secure taxation targets by incorporating some of the market sectors into the official planning sector.

It cannot impose taxes on the informal sector. If the informal areas continue to expand, the regime has no choice but to consider including them in the official realm for taxation. Considering the lack of finance in North Korea,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leave the situation as it is.



So far, we have discussed why the North Korean regime actively accepted the market sector because this made the market sector grow.

Now, let's look at the second factor,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In fact, we will look at foreign trade in more detail in the next lecture. Today, we will briefly review how the expansion of foreign trade has helped marketization.

North Korea's trade volume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It showed a sharp decline after the sanctions were strengthened later.

Still, an increase in the trade volume must have helped the market sector in many ways. First, if exports increase, it boosts income. When incomes increase, the purchasing power of people increases, resulting in more market demand.

Now, let's look at the increase in income. If the income increases, supply to the market also increases. Particularly, because North Korean products have poor quality and are not diverse, residents may prefer imported products more. In fact, it is known that imported goods account for a fairly high proportion of goods distributed in the North Korean market.

This increase in trade increases both market demand and supply. The cost of transactions has also decreased due to increased imports. As I mentioned earlier, imports of trucks and mobile phone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Kim Jong-un regime. Especially, the import of mobile phones became in full swing in the 2010s.

The increase in truck imports is a sign that the transportation industry has developed. It must have promoted changes like the smoother movement of people and goods and the integration of national markets. Also, the spread of mobile phones allows market-related information to circulate quickly, which helps facilitate transactions and stabilize prices.



So far, we discussed how much North Korea's market sector has grown in the Kim Jong-un regime and why the market sector has grown. Then, how big is the market sector in North Korea's economy? Let's look into this.

The thing is, analyzing this is not easy at all. It is especially difficult in today's situation where the market and planning sectors co-exist. The data we can refer to is also very limited. Please listen to the following with these limitations in mind.

First, let's look at how much the income from the informal sector like the market takes up in the total income. This was mainly analyzed using the survey conducted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informal income was much higher than the official income.

The left graph shows the survey result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entered South Korea from 2011 to 2018. The survey was on their official income in North Korea right before they defected. The survey question was about how much they received each month from the job assigned by the state.

The right graph shows informal income, how much income they earned each month through economic activities other than a job assigned by the state.

Let's start with the graph on the left.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had no income at the job assigned by the state accounted for about 50% since 2013. Many of the rest responded that their official income is less than 5,000 North Korean won.

You probably don't know how much 5,000 won is worth. You can buy 1 kg of rice for 5,000 won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5,000 won is far too little to make a living. Most North Koreans were unable to earn a living with the income from the formal sector.



The wage level of North Korean companies is so far from reality. In the Kim Jong-un regime, some companies raised wages dozens of times and made them realistic, but many still pay wages that are barely helpful to make a living. Because of this, many workers pay money to companies and go out to engage in private economic activities like 8.3 Workers, and a lot of women who do not belong to the workplace engage in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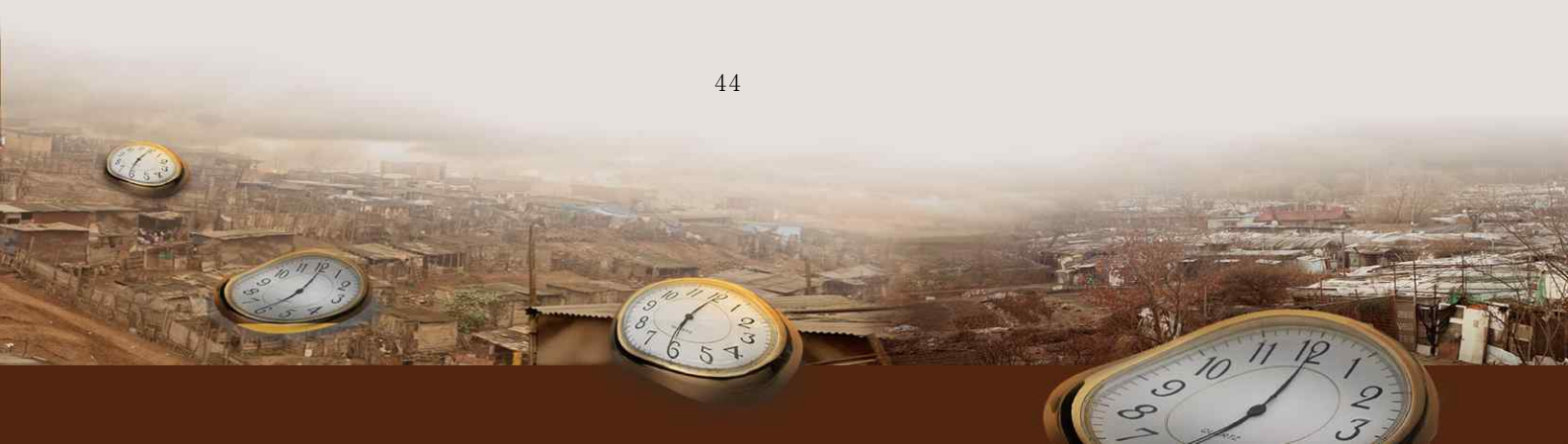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e IPUS, 70% of North Korean defectors run businesses in North Korea.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such a wide range in North Korea.

Now, let's look at how much informal income the residents earn through private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rade. The graph on the right shows this.

It is different every year, but those who responded that their informal income was none or less than 10,000 won account for 20% to 30%. Those who responded that their informal income was over 100,000 won account for 50% to 70%.

Comparing these two graphs, you can see that North Koreans earned most of their income in the informal sector in the 2010s. However, you need to consider a few things when interpreting this.

First, rationing is partially recovered. But rations are not reflected in the official income here. For example, defectors may have said that they received 5,000 won when they received 5,000 won in cash and 10 kg of rice. Therefore, official income may be underestimated.



Second, there could be many 8·3 Workers or housewives among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had no official income. They don't have official income because they don't work at a job assigned by the state. We have to calculate official income after excluding them, but that is not considered in the graph presented here. This, too, may contribute to an underestimation of official income.

Third, you need to consider that those who were engaged in the informal sector are more likely to defect than those who have a stable position and a relatively high income in the formal sector. Those with stable status and economic power in North Korea are less likely to defect. This can also be a reason why informal income accounts for a higher share in the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You also need to consider that man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women, who mainly participate in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come from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here the inflow of goods from China is relatively high.

In summary, the formal and informal income level in the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likely to be slightly distorted, showing a higher share of income in the informal sector. Even taking these into account, however, it seems clear that the informal secto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income of North Koreans.

Even though the informal sector accounts for such a high share of household income, the informal sector is unlikely to account for a high share of North Korea's GDP. In North Korea, the public services sector, such as administration, national defense, security, education, and health,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 of GDP, and state-owned enterprises' investment activities belong to the official sector.

I feel my explanation is not enough, but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is more systematically due to the lack of related statistics. I ask for your understanding on that point.



Let me summarize the discussion on how large the market sector i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market takes up a high proportion of the public economy, but the planning sector still takes up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whole economy.

Lastly, let me explain the situation in 2020 in terms of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deteriorated since 2017 because of the sanctions. Looking a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estimated by the Bank of Korea, it has recorded negative growth since 2017.

As the economic situation deteriorated,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also started to slow down. This is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 reinforced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overall economy while emphasizing self-reliance. Because of the COVID-19, imports of Chinese consumer goods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market sector seems to be shrinking due to restrictions and controls on market activities.

However, the regime is not suppressing the market like it did in the late 2000s. The North Korean regime seems to be aware that the market sector has become very important in the economy and turning it back may bring serious side effects because some are already incorporated into the official sector.

What would it change in the future? The North Korean regime is likely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stance of strengthening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overall economy unless the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significantly due to the continued sanctions. In such a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great progress in marketization.

However,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progress further. Reversing this flow is not easy as markets are deeply embedded in the economy as a whole and even in the planned economic system.



So far, we have discussed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regime. After a break, we will examine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5-4

Impact of Marketiz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Hello again. So far, we have discussed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regime. Now, let's examine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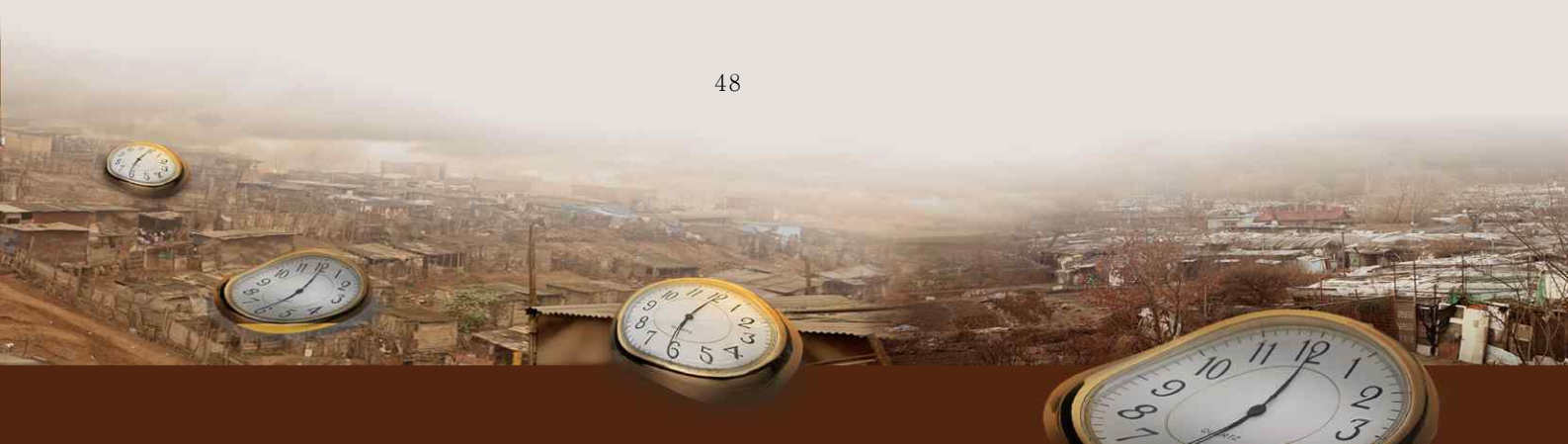
I already mentioned these while discuss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marketization. I will explain them in four points: improving efficiency in resource distribution, utilizing idle manpower and facilities, stabilizing residents' lives, and increasing financial income.

First,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ncreases. What does it mean to efficiently allocate resources? If resources are allocated most efficiently, each good will be produced as much as society needs, and the product will be distributed to those who value it the most.

In a planned economy,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s low. The state allocates resources based on the plan, but the state has limited information. Thus, there are limitations in allocating resources to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However, as marketization progresses, the resource is efficiently allocated by the price mechanism. As a result, the whole society can use allocated resources well to enjoy a higher level of utility.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became higher in today's North Korea compared to the past due to marketization.

Second, it has increased the utilization of idle manpower, facilities, and resources in North Korea's planned sector.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North Korea's official economic sector has not functioned properly, leaving a large amount of idle manpower and facilities in the state sector.



However, as private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through marketization, the idle manpower started to participate in production activities and idle facilities started to be used. This has improved workers' incomes and company financing.

The 8·3 Workers is one example. Idle manpower of state-owned enterprises started to engage in private economic activities. The case that Donju borrows production facilities from state-owned enterprises for production is another example.

Third, marketization helps residents maintain a stable livelihood. As mentioned earlier, many North Koreans do not receive adequate wages in official jobs to make a living.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knows that it should be corrected, but that is not easy.

In additi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nly exists as a mere formality and does not provide any practical help to residents. For example, North Korea does have a pension for the aged, but it is only a few hundred won. Considering that 1kg of rice is 5,000 won, the pension for the aged exists as a mere formality.

In this situation, residents eventually have to live on the income earned through private economic activities. Residents no longer expect the state to take care of their livelihoods.

Lastly, expanding the market sector contributes to stabilizing the national fiscal revenue. Earlier, I mention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profits by selling mobile phones and operating modern supermarkets. I also said that the Kim Jong-un regime's attempt to incorporate the market sector into the official planning sector is related to finance. The government cannot impose taxes on the informal sector, so it is gradually trying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formal sector.



Let me add one more point. North Korean government is collecting taxes under various names even in the market, and this has been considerable help in stabilizing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North Korean regime collects market usage fees and storage fees for storing bicycles and luggage in the general markets, which become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Let me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market usage fee. There are three types of market usage fees that merchants should pay to the market management office under the People's Council of the city or county.

First, you should pay a fee to purchase Maedae, a space to sell. This is a relatively large amount. When you open a business, you have to pay rent every day, and the amount varies depending on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Maedae. Finally, you need to pay a fee based on the sales amount.

How big is it? It's hard to know exactly. A study conducted in 2016 estimated that the amount collected from markets could reach up to \$70 million a year because there are more than 400 markets nationwide. Considering the size of North Korea's economy, this is not a small amount.

Now, let me summarize the 5th lecture. First, the lecture started by discussing what marketization is. I said that marketization is a phenomenon in which various types of markets are formed and expanded, as well as a phenomenon in which market mechanisms are introduced and spread. North Korea has witnessed changes in both over the past 20 years.



Second, we looked at the marketization process in the 2000s. Originally, there was the 'Farmers' Market' in North Korea. But it was held only once every 10 days, and the items traded were very limited. Then, during the North Korean Famine, farmers' markets turned into huge black markets, and trade items were diversified. In a situation where rations were cut off, 'marketization from bottom to top' took place as resid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 various ways to survive.

As a result, the farmers' market was transformed into a general market, a legal market for consumer goods after the 7.1 Measures in 2003. As market activities became more active, a class called 'Donju' who accumulated capital and 'wage laborers' emerged and private finance also developed. Of course, the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were formed informally, but this was a significant change compared to before.

However, North Korea's policy direction was changed to suppress the market after the mid-2000s. It was caused by the backlash against change and concerns about the shaking of the socialist order.

As a result, market activities were restricted, and currency reform was also implemented to suppress Donju class in 2009. However, the currency reform brought resistance from people and ended in failure with several side effects such as inflation. The market restraint policy was also withdrawn.

In the Kim Jong-un regime, marketization has progressed further. The number of general marke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various service industries have also been activated. Still, privately owned companies were not allowed, so Donju had to borrow the name or assets of state-owned companies to run their business, which limited the scale of private economic activities.



In the Kim Jong-un regime, the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also showed a growing trend, albeit at a slower pace. Employment of wage labor in the informal sector has increased, and private finance has become systematiz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activate commercial banks.

There were two main reasons why North Korea's market sector has grown under the Kim Jong-un regime. One wa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actively accepted the market sector and the other was that foreign trade expanded.

Next, we examined how much the income from the informal sector like the market takes up in the total income. The conclusion was that the market takes up a high proportion of the public economy, but the planning sector still takes up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whole economy.

As the North Korean economic situation deteriorated after 2017,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policy stance to strengthen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overall economy, and marketization slowed down. The North Korean regime is likely to maintain the current policy stance due to the continued sanctions. However,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progress further.

Lastly, we discussed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I mentioned four points. First,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was improved. Second, the utilization of idle manpower, facilities, and resources in the official sector was enhanced. Third, it helped residents maintain a stable livelihood. Fourth, it contributed to stabilizing the national fiscal revenue.

Let me wrap up the lecture. In the sixth lecture, we will discuss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the third topic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2000s.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환 교수

Although North Korea's trade volume is not large, the foreign economy is very important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us, learning about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will help you better understand the North Korean economy. I'll see you in the next lectur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5周

2000年代以后的朝鲜经济：市场化

5-1

市场化的背景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朝鲜经济的昨天和今天》课程的洪制焕。这一讲是第5讲，以“2000年代以后的朝鲜经济：市场化”为主题进行。

上一讲我们了解了2000年代以后朝鲜的经济改革。主要考察了2002年7.1措施和金正恩在时代经济改革过程中对企业部分形成的改革措施内容，由此能够确认自2000年代以后在企业部门中形成而来的多样化变化。

在考察了2000年代以后朝鲜经济改革的内容后，我们将其与中国早期的改革事例进行了比较观察。结果确认到朝鲜改革的水平依然没能达到中国早期改革的水平，换言之，朝鲜的经济改革还有很长一段路要走。

这一讲我们要考察2000年代以后朝鲜的市场化。上一讲提到过，经济改革与市场化紧密相关。因此，本讲与上一讲的内容也有部分重复之处，这一点提前说明一下。

本讲按照以下顺序进行。首先，要从朝鲜市场化背景开始考察。接下来，在考察2000年代朝鲜经济的市场化状况之后，针对金正恩时代市场化的内容和特征进行说明。最后，将针对市场化对朝鲜经济造成的影响进行考察，结束本讲。

在过去的20多年间朝鲜经济经历了许多变化。并且，可以说变化的核心就是市场化。既然如此，所谓的市场化说的是怎样的变化呢？首先要从这部分讲解开始本讲的内容。

市场化大致可以从两个层面来定义。第一，形成消费品市场、生产资料市场、劳动市场、金融市场等多样形态的市场，可以说是数量上的膨胀现象。



第二,可以说意味着市场机制的引入与扩散。价格由供需决定,根据价格经济主体做出决策,资源分配调整的现象在整个经济领域中扩散。可以说,这就意味着朝鲜一贯坚持的计划经济体系,即国家对经济进行所有决策的体系正在被削弱。

可以说在过去的20多年里,朝鲜在市场化的两个层面都经历了很大的变化。事实上,在此之前朝鲜已经存在市场。1950年代末开始“农民市场”已经正式存在。

这种市场每十天开一次,农民们可以按市场价格出售宅基地生产的农作物。但是不能交易像大米、玉米这类粮食,工业产品也被禁止交易。市场中的交易受限较多。

然而,进入90年代后农民市场发生了变化。转化为巨大的黑市。居民们也开始称它为“集市”。

带来这种变化是因为经济危机。经历“苦难的行军”的过程中,朝鲜的计划经济体系实际上已崩溃,粮食和各种生活必需品的供应无法实现,居民们的生计开始变得茫然,有的把家有的物品拿出来售卖,有的通过非法开垦种植坡地小土地庄稼售卖出产的农作物。

另外,也有很多居民做食物卖,甚至也有在单位偷盗物品售卖的情况。居民们为了生存,通过各种方式参与经济活动的过程中,市场活动变得更加活跃。

前面提到过在农民市场中对交易品种的限制较多。但是,国家连生活必需品的分配都给不了的情况下,对交易品种的控制就失去了意义。现在,市场中不仅是粮食,生活用品、耐用消费品等多种商品也可以交易。

此外,也出现了一系列变化:例如,农民市场以外的地区像居民来往较多的路边及住宅附近等地方也可以交易,每十天一开的市场每天开设等。

朝鲜当局对于这种情况大体采取默认态度。在无法正常提供供给的状况下朝鲜当局也束手无策。这样看来,在朝鲜的市场化过程中“自下而上的市场化”尤为重要。而且,这样出现的朝鲜市场化现象一直持续到今天。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환 교수

本节课我们对市场化的背景进行了考察，下节课我们将对2000年代朝鲜的市场化进一步探讨。



5-2 2000년대朝鲜의市场化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考察了市场化的背景。这节课我们来考察2000年代朝鲜的市场化。

上一讲提到过2002年的7.1措施。通过7.1措施就像上次节大家看到那样，朝鲜出现“自下而上的市场化”被官方部门部分采纳了。

例如，“净收入”指标的引入，为企业生产与计划无关的产品在市场上销售提供了合法空间。另外，还引入了朝鲜最早的生产资料市场“社会主义物资交流市场”。

2003年3月引入作为消费品市场的综合市场也可以看作是非常重要的变化。将原本是黑市，并暗地流通着各种消费品的农民市场，官方正式认可其合法性，并可以正规流通和销售消费品。

但是，大家也会有疑问：与这种变化相关的所谓合法化是那么重要的问题吗？实际上，将已经经营的市场合法化，表面上看来没有马上出现大变化。

但是在默认下非正式进行和正式允许之间存在相当大的差距。特别是像在朝鲜这样因为领导人一句话形势能够风云骤变的社会，合法化非常重要。非法境遇中给予默许，不知道当权者会不会何时突然以此问责处罚，人们一直处于不安状态，这对于市场部门的发展来说起到负面的影响。

那么，随着综合市场的引入具体出现了怎样的变化呢？首先，随着商业活动的进一步活跃，通过生意赚钱后积累资本的“钱主”阶级将正式形成。

综合市场出现之前，也会出现通过生意积累资本的人。但是，“钱主”阶级正式出现可以看作是在综合市场引入以后。与钱主相关的内容在后面还要再提及。

随着市场活动的进一步活跃，劳动市场及金融市场也得到发展。并不是都出现了官方的市场。而是，出现了初级雇佣劳动者，也就是从别人那里拿工资工作的劳动者，民间金融进入发达状态。



我从出现了雇佣劳动者这一点开始讲。伴随着商业活动的活跃，钱主一类人以非官方形式经营像饭店一样的商铺开始出现了。经营商铺需要雇人，因为是非官方经营的缘故无法从国家获得劳动力的分配。因此，产生了劳动力需求。

并且，国营企业由于不正常运转，产生了剩余劳动力。这种情况虽然也有通过解雇等方法来减少劳动力的方案，但在朝鲜这类方法难以推行。因此，他们以在上节课提到的 8·3 劳动者等形式存在。并且，其中一部分作为雇佣劳动者是给非正式劳动市场提供的。

就这样形成了劳动力需求与供给，达成非正式的雇佣劳动者。商铺主人支付日薪雇人。只是截止到2000年代，这种形态的雇佣看起来没有大量增加。

这次我们来看一下民间金融。生活中会出现需要贷款的情况。并且，为了生意也需要贷款。但是，朝鲜居民无法从银行获得贷款。然而，伴随着市场化的发展形成了通过生意积累资本的所谓“钱主”阶级，从他们那里进行非官方的借款变得可能了。这样一来，从这个时期开始，朝鲜民间金融逐渐发展。

综上所述，从7.1措施前后的时期开始，朝鲜的消费品市场、生产资料市场、劳动市场、金融市场开始形成并壮大。当然，其中劳动市场和金融市场没有被正式许可，虽然在发展过程中受限，但仅凭形成这种市场这一点足可以说是相当大的变化。

但是市场化态势在2000年代中期以后发生了变化。2007年起政策开始从促进市场发展向抑制市场发展转变。那么，为什么政策基调转变了呢？

第四周的课程中介绍过7·1措施等经济改革是内阁主导的。然而，对此劳动党的反驳也越发激烈。另外，对改革副作用的担忧之声也越来越大。不管怎么说，如果进行改革现有的社会主义秩序就会动摇，对此不满的呼声就会增大。

抑制市场的政策以多种形式形成。限制呈多样化：限制综合市场生意人的年龄或是生意时间、经营品种等。另外，还加强检查，也形成了对钱主的处罚。也就是说，将钱主展开的各种非正式经济活动视为问题。



2009년 11월 달성의 화폐 개혁도 보아도 억제 시장 정책의 하나. 화폐 개혁은 영향 특별히 큰 사건, 여기서 보아도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당국 보아도 화폐 개혁,促使 旧币换新币, 在 交换 金额 上 附加 了 限度. 那么, 谁 是 最 受 损 失 的 呢? 就是 像 钱 主 一 样 拥 有 很 多 钱 的 人.

这样 一 来, 钱 主 持 有 的 现 金 大 幅 缩 水, 结 果 导 致 市 场 部 门 的 活 动 萎 缩. 朝 鲜 当 局 紧 接 着 在 2010 年 初 发 表 了 将 综 合 市 场 重 新 回 到 农 民 市 场 的 宣 言.

那么, 结 果 如 何 呢? 称 作 美 元 化 制 度 的 外 汇 通 用 现 象 在 朝 鲜 大 规 模 扩 散. 看 到 货 币 改 革 突 然 侵 害 了 钱 主 的 财 产, 对 朝 鲜 货 币 的 不 信 任 也 随 之 升 温, 人 们 开 始 偏 好 持 有 美 元 或 人 民 币 代 替 朝 鲜 元.

结 果 导 致 朝 鲜 货 币 价 值 大 幅 跌 落, 与 美 元 的 兑 换 比 率 大 幅 攀 升, 以 朝 鲜 元 为 标 准 的 物 价 也 飞 速 上 涨. 此 图 呈 现 出 朝 鲜 平 壤 地 区 大 米 价 格 的 趋 势 变 化, 能 够 确 认 从 2010 年 开 始 到 2012 年 为 止 的 三 年 期 间, 米 价 呈 陡 然 上 升 趋 势. 朝 鲜 当 局 认 识 到 存 在 的 问 题, 采 取 了 缓 解 兑 换 措 施, 即 使 如 此, 由 此 产 生 的 影 响 也 持 续 了 相 当 长 的 一 段 时 间.

而且, 国 营 企 业 也 在 生 产 中 受 到 了 冲 击. 国 营 企 业 资 金 不 足, 一 直 使 用 钱 主 的 资 金, 由 于 货 币 改 革 的 缘 故 变 得 愈 发 困 难.

结 果, 朝 鲜 当 局 强 化 抑 制 市 场 政 策 的 货 币 改 革, 可 以 说 以 失 败 告 终. 并且, 2010 年 5 月 撤 回 市 场 抑 制 政 策.

这 节 课 我 们 对 2000 年 朝 鲜 的 市 场 化 进 行 了 考 察. 下 节 课 我 们 将 对 金 正 恩 时 代 朝 鲜 的 市 场 化 进 行 探 讨.



5-3 金正恩时代朝鲜的市场化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考察了2000年朝鲜的市场化。这节课我们来看一下金正恩时代朝鲜的市场化。

首先来看一下金正恩时代的市场化是如何开展的？前面提到过市场化可以分为两种：消费品、生产资料、劳动、金融等多种形态的市场发展和市场机制的扩散。金正恩时代这两个方面都发生了相当大的变化。

首先，商品市场大幅膨胀。作为消费品市场的综合市场大量增加就很好的体现出这一点。2010年初，当时朝鲜实行市场抑制政策，美国的韩美研究所分析了卫星照片，观测到朝鲜有200多个综合市场。

但是，2016年我所在的统一研究院通过卫星照片进行过分析，发现综合市场数量超过400个。2018年初，韩美研究所再次对卫星照片进行了分析，观测到的综合市场至少存在482个。8年间，综合市场的数量足足增加了两倍以上。

画面中显示的图片是以2016年为标准，以道为单位标注的朝鲜市场存在数量。能够确认像平壤、南浦这样的大城市有20~30个市场。还可以看到人口相对较多的平安南北道，咸镜南北道地区市场分布也较多。

服务市场也发展壮大。根据市场的进程，人与物资的流动需求也不断增加，运输业也迅速崛起。私营运营商运营长途汽车线路，在全国范围内形成。例如，2013年，平壤旁边的平安南道平城开往平安北道新义州、慈江道江界、两江道惠山、咸镜南道咸兴等全国所有道所在地城市的公交车都在运行。

与此同时，个人运营的市内公交、出租车等也大量增加。1990年初中期出现了被称为“服务车”的非法运输服务，2000年代开始出现了这种市外长途汽车、市内公交车、出租车等交通服务，进入2010年以后，规模大幅扩大。



另外,随着物资流动需求的增加,卡车运输业也随之发展。2010年,朝鲜以卡车为主的货物车进口大幅增加,这同样呈现出运输业的发展态势。

前面提到过民间企业家们经营市外公交线路,个人运营的市内公交、出租车等也大量增加。那么,朝鲜私企的设立被允许吗?不是这样的。对此,上节课我们讲解过关于经济改革的内容。

那么,个人又是如何从事这种活动的呢?如果以出租车运营为例的话是这样的。 个人购入出租车。 但是,这种生产资料是个人所无法持有的,要在机关或企业登记。 也就是说原则上所有者是机关或者是企业。 这样操作后,在运营出租车的同时,要向企业交付一定金额的费用。

这解释为戴“社会主义帽子”。通过这样,个人可以确保进行私营经济活动的合法性,企业从中可以获取税金。 在朝鲜,个人以这种形式来做生意的情况较多。

我再讲讲服务市场的发展。2010年,朝鲜以电视、冰箱为主的家用电器进口量大幅增长。 随之而来的是电器修理行业的发展。 并且,随着住宅交易增加,房地产中介也登场了,私人教育市场的规模也扩大了。 也有证言称,在朝鲜也盛行使用摩托车的送货业。 除此之外,多种多样的服务市场也在发展中。

表是以脱离朝鲜的居民为对象,在朝鲜进行了多少私营经济活动的调查结果中,只收集整理了与服务部门相关的项目。通过比较2007-2012年的调查结果和2013-2015年的调查结果,可以确认服务部门正在发展。

从在管理所挂籍经营馆店、美容院、住宿场所等的人非常多的回答来看,可以确认相比2007年~2012年的调查,2013年~2015年的调查中肯定回答的比率都提高了。

在商业管理所挂籍在家经营饭店的人非常多的回答比率从14.7%增加到50.6%。从给养管理所挂籍租赁房屋,个人经营的饭店非常多的回答比率从30.3%上升到48.1%。

但是,看这里的话,一直会出现出现叫做“在管理所挂籍”的文字表述。大家应该很难理解究竟是什么意思。 前面也曾提到朝鲜禁止个人拥有企业。 因此,居民们用各种变法办法来做生意或经营店铺。



在管理所挂籍也可以看作是属于这种例子。可以看作是刚才提到的戴"社会主义帽子"的事例。

既然已经提起了话头，我就对钱主们经营企业的方式进行一下讲解。

钱主们运用国营企业的名义或资产做生意的情况很多。首先，借名在管理所挂籍就属于此类。以相应企业的下属企业在国家登记。这称为戴上"社会主义帽子"或"红帽子"，前面已经提及过。

也有借用国营企业生产资料的情况。借用企业没有用于生产的设备支付一定的费用进行生产。还存在名义和生产资料都借用的情况。

当然国营企业借出名义和生产资料也得到了补偿。钱主戴上"社会主义帽子"取得合法性，企业由于生产萧条把反正也不使用的生产资料或名义借出来确保资金，钱主和企业间形成一种互惠互利的关系。只是这样，钱主的私营经济活动规模扩大是有限的。

主题有点偏向其它方向了。再次回到对金正恩时代市场化进展的讨论。

金正恩时代，在消费品、服务业市场发展壮大的同时，劳动市场和金融市场虽然较为缓慢，但也可见增长势头。其中先从劳动市场开始看。

朝鲜不可能存在正式的劳动市场。因为国家把所有劳动者都安排到岗，保证就业。但是，在7.1措施后，曾经介绍过形成了非正式的劳动市场。在金正恩时代，私营经济部门非正式的劳动市场也在成长。

该表和之前展示的表一样，是以脱离朝鲜的居民为对象进行的调查，显示了租赁劳动有多么活跃。从整体上看，可以确认金正恩时代的租赁劳动雇佣更加活跃。

当被问及有多少人愿意帮助他人从事田间农活并收钱时，回答"非常多"的人所占比例翻了一番，从2007年-2012年的16.5%增加到2013年-2015年的35%。另外，对于在个人运营的便利服务设施中收钱工作的人有多少的问题，回答"非常多"的人比率从2007年~2012年的18.3%上升到2013年~2015年的30.6%。



下面来看金融市场。 金融市场方面，以民间金融为中心，非正式市场似乎有所增长。如果说以前没有担保,以高利率进行小额贷款的话，那么金正恩时代也进行了担保贷款。能够以住宅入舍证明或生产资料等为担保。可以说这是以非正式形态私有化取得进展的结果。

另外，还出现了贷款更加体系化的现象。例如，根据担保与否和担保价值，贷款规模和利率等也会有所不同。这可以看作是随着担保贷款变得可能，自然而然地随之出现的现象。

官方金融部门的一个值得关注的变化是进入金正恩时代后正在设立商业银行。朝鲜于2006年制定了《商业银行法》。 在此之前，中央银行还起到了商业银行的作用，但采用该法律后让商业银行单独设立。

但是只制定了制度，实际上并没有引进商业银行。直到2015年左右，朝鲜开始设立商业银行。据悉，仅平壤就有30~40家商业银行运营，但实际上商业银行并没有被大量利用。 但是，朝鲜当局正在试图激活官方的金融市场，因此有必要继续关注这一趋势。

那么，进入金正恩时代后朝鲜市场部门成长的原因是什么呢？大概是因为各种因素所导致的影响。 在这里我们来看一下其中被认为是最重要的两个因素。

首先，我要告诉大家朝鲜当局已经积极地容许了市场部门这一点。正如前面所说，虽然朝鲜的市场化是从下面进行的，但是当局对市场采取什么样的立场也起着非常重要的作用。 此前，2000年代后期朝鲜当局实施市场抑制政策后，市场部门萎缩，由此可见当局的立场如此重要。

但是金正恩政权在制裁影响深化之前，对市场化表现出了友好的态度。当然，即使如此也没有考虑转换为市场经济体制。 但是，也有人评价说金正恩时代朝鲜当局主导市场化，比以前更加积极地容许市场化。

其根据有很多种。首先，在上次课中，我们谈到了引进企业指标或允许开设现金账户等问题。他们表示，实际上正式允许了利用此前在当局默许下进行的市场企业生产活动。



朝鲜当局直接参与市场部门获得收益。 朝鲜当局主导无线通信产业，进口中国的低价手机终端机，附加高额利润向居民销售，获得了大规模收益，这就是具有代表性的例子。 根据一项研究推测，这样下来朝鲜当局赚取的收益将达到6亿~9亿美元。

另外，进入金正恩时代后，国家以市场经济方式运营被称为"北朝鲜版便利店"的"黄金蜂商店"或"昌光商店"等大型超市，也可以说是这样的事例。

但是朝鲜当局因为什么原因如此积极地接纳和利用市场部门呢？ 大致可以考虑两个方面。

首先，这可能是因为积极接纳市场部门是不可避免的。也就是说，市场部门在朝鲜经济中所占的重要性越来越大。 但是朝鲜当局也没有从官方层面放弃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想法。 这么一来，我认为是否是在维持计划经济体制的同时，以将市场部门中的一部分编入官方部门的形式进行妥协。

另外，也可以考虑考虑财政方面的可能性。正如之前所看到的，国家进入无线通信或流通领域是为了国家通过销售获得收益。 另外，将部分市场部门编入官方计划部门，也有确保征税对象的目的。

对非官方部门不能征税。因此，如果这些非官方领域继续扩大，国家将不得不考虑将其划入官方领域征税。 更何况，朝鲜财政非常不足，所以很难放任这种情况一直继续下去。

到目前为止，进入金正恩时代后，朝鲜市场部门发展壮大的原因之一，就是朝鲜当局积极容许市场部门。

这回我们来看看第二个原因就是扩大对外贸易方面。事实上，关于对外贸易，我们将在下一节课上仔细探讨。 因此，在这里我们将焦点瞄准扩大对外贸易如何有助于市场化，简略梳理一下。

进入金正恩时代后，朝鲜的贸易规模大幅增加。

当然，随着对朝制裁的加强，再次呈现出急剧减少的趋势。



扩大贸易规模有助于市场部门在各个方面的发展。如果出口增加，对提高收入很有帮助。而且随着收入的增加，居民的购买力也会提高，市场需求也会增加。

这次我们来看一下进口增加。进口增加，市场供应就会增加。特别是朝鲜，由于生产的产品质量不好，产品种类也不多，所以居民对进口商品的喜爱度可能会很高。据悉，实际上在朝鲜市场流通的商品中，进口商品所占的比重相当高。

像这样贸易增加的话，市场供需都会增加。而且，金正恩时代由于进口增大，投入交易的费用也减少了。前面也说过，金正恩时代货车和手机进口大幅增加。特别是手机，进入2010年代，正式开始进口。

货车进口增加可以看作是运输业的发展。由此，会出现人员和物资移动变得顺畅、促进全国市场融合等变化。另外，随着手机的普及，市场相关信息会迅速流通，这有助于促进交易和稳定价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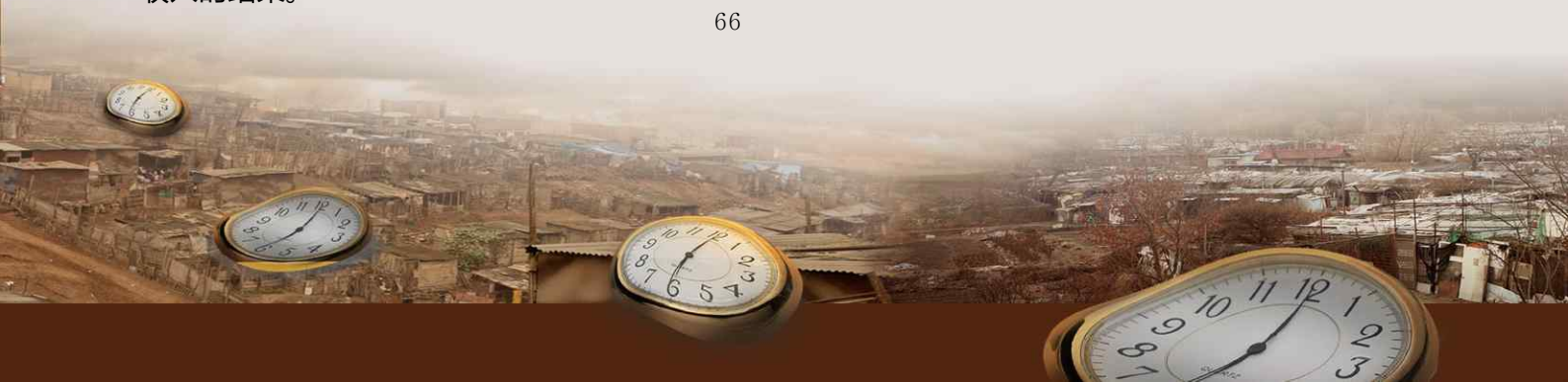
到目前为止，我们了解了进入金正恩时代后，朝鲜的市场部门有了多少发展，市场部门发展的原因是什么。那么市场部门在朝鲜经济中占多大比重呢？对此让我们来看一下。

但是这种分析并不容易。特别是像今天这样，在朝鲜出现市场和计划部门混为一谈局面的情况下就难上加难。另外，为了确认这一点能够参考的资料也非常有限。考虑到存在这种局限性，希望大家聆听以下内容。

首先来看一下人们收入中在市场等非官方部门获得的收入占多大比重？主要利用以脱北居民为对象进行的问卷调查结果进行分析，普遍来看非官方收入比官方收入多很多。

左图是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以2011年至2018年进入韩国的脱北居民为对象，调查自己在脱北前在朝鲜获得的官方收入的结果。也就是说，这是询问国家安排的工作单位每月收入多少的结果。

右图是非官方收入，即不是国家安排的工作岗位，而是通过其他地方的经济活动每月提高多少收入的结果。



先从左边的图片开始看。

国家安排的工作单位中回答完全没有收入人的比率在2013年以后达到了50%左右。而且，剩下的相当一部分人也回答说，官方收入在朝鲜币5000元以下。

你可能不知道5000朝元代表的是多少金额，如果说在朝鲜1kg大米是5000朝元左右的话，应该会找到感觉吧。换言之，5000朝元远远不足以维持朝鲜居民的生计。综上所述，大部分朝鲜居民在官方部门没有达到生活所需的收入水平。

朝鲜企业的工资水平如此脱离现实。据悉，金正恩时代部分企业将工资上调数十倍适应现实，但相当多的企业仍然只支付对生活几乎没有帮助的工资。因此，劳动者以8·3劳动者等形式向企业交钱后外出进行私营经济活动的情况很多，不属于工作单位的女性进行私营经济活动的情况也很多。

首尔大学统一和平研究院的调查显示，调查对象脱北居民中有70%在朝鲜做过生意。在朝鲜，私营经济活动正在广泛实现。

那么，这回我们来看一下居民们通过像做生意这样的私营经济活动赚取了多少非官方收入。右图显示了这一点。

每个年度略有偏差，总体来看回答毫无收入或1万朝元以下的人约占20%~30%。回答非官方收入在10万朝元以上人的比率是50%~70%左右。

比较这两幅图可以发现，2010年代朝鲜居民大部分收入来自非官方部门。但是，在分析这个问题的时候，有几个应该考虑的部分。

第一，分配看起来部分已经恢复了。但是之前看到的官方部门收入中并没有反映分配。例如，收到了5000朝元现金和10公斤大米，在调查回答时只能说收到5000朝元。因此，官方收入有被低估的可能性。



第二,回答完全没有官方收入的人中,很有可能是8·3劳动者或赡养,即家庭主妇。他们不在工作单位工作,所以不会产生官方收入。因此,应该排除他们计算官方工资,但这里显示的表格中没有反映这种考虑。这也可能是导致官方收入水平过低的因素。

第三,与在官方部门处于稳定地位,收入相对较高的人相比,主要从事非官方部门的人脱北的可能性更高。因为在朝鲜拥有稳定地位和经济能力的人,脱北的诱因相对较少。而且,这也可能成为脱北朝鲜居民调查结果中非官方收入所占比重更高的因素。

而且,脱北居民中有相当一部分是主要参与私营经济活动的女性,也有必要考虑中国物资流入相对较多的朝鲜和中国边境地区出身这一点。

整理一下,在脱北朝鲜居民调查中出现的官方、非官方收入构成很有可能多少被歪曲为非官方部门的收入比重较高的方向。但是,即使考虑到这一点,在朝鲜居民的收入中非官方部门起到了相当重要的作用。

但是,与非官方部门在家庭收入中所占的高比重不同,非官方部门在朝鲜国内生产总值中所占的比重可能不会那么高。其根据是,朝鲜国内总生产中行政、国防、治安、教育、保健等公共服务部门所占的比重较高,国营企业投资活动也主要属于官方部门。

感觉说明有点不充分,但事实上这部分内容没有相关的统计,所以很难更系统地分析并告诉大家。这点请大家谅解。

针对市场部门在朝鲜经济中占多大比重的讨论结果,综合来看虽然与民生经济相关的市场比重很高,但从经济整体来看,计划部门仍然占据不小的比重。

关于金正恩时代朝鲜的市场化,最后说来一下2020年的情况。朝鲜经济受制裁的影响,从2017年开始情况恶化。从韩国银行推测的朝鲜经济增长率来看,2017年以后一直处于呈负增长状态。



随着经济状况的恶化，朝鲜的市场化趋势也开始放缓。朝鲜当局强调自力更生，将政策基调转换为加强对整体经济的控制和管理。 再加上新冠肺炎疫情的冲击，中国消费品的进口也大幅减少，对市场活动的限制和控制加强后，市场部门似乎出现了萎缩的局面。

但是，好像没有出现像2000年代后期那样压制市场的现象。市场部门在朝鲜经济中占据的重要性已经增大，部分被编入官方部门，因此朝鲜当局也认识到人为地扭转这种局面会带来严重的副作用。

以后将会怎么样呢？我认为，在制裁持续且对外环境没有太大变化的情况下，朝鲜当局很有可能像现在这样维持加强对整体经济控制和管理政策基调。 在这种情况下，市场化似乎也很难期待取得大的进展。 但是放眼从中长期来看，预计朝鲜的市场化将会进一步进展。 因为市场正在深入渗透整个经济甚至是官方计划经济部门，预计很难扭转这种趋势。

这节课我们了解了金正恩时代朝鲜的市场化。下一节课我们将考察市场化对朝鲜经济的影响。



5-4 市场化对朝鲜经济的影响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了解了金正恩时代朝鲜的市场化。这节课我们来看一下市场化对朝鲜经济的影响。

事实上，这是前面在观察市场化发展过程时，中间暂时提到的事项。在这里综合起来，将分为提高资源分配效率、利用闲置人力和设备、稳定居民生活、增加财政收入等四类进行讲解。

首先，可以考虑资源分配效率提高的问题。资源配置高效意味着什么状态？如果让资源分配最有效率，那么各种财物将按照社会需要量生产，商品将分配给对商品赋予最高价值的人。

计划经济体制下资源配置效率低。国家根据规划配置资源，国家掌握的信息必然会受到制约，因此，资源在各得其所合理按需分配方面是有受限的。

但是随着市场化的发展，通过价格机制的运作，资源分配将变得高效。结果，利用给定的资源，社会整体可以享受更高水平的效能。可以说，在市场发达的今天，朝鲜资源分配效率也比过去提高了。

第二，提高了朝鲜官方部门中闲置人力、闲置设备及资源的利用率。90年代经济危机后，朝鲜官方经济部门无法正常运作，导致国营部门存在大规模的闲置人力和闲置设备。

但是，随着市场化的推进和私营经济活动的增加，出现了这种闲置人力参与生产活动或闲置设备被活用的现象。这有助于增加劳动者的收入或为企业筹集资金。

前面提到的8·3劳动者也可以说是这种例子。国营企业的闲置人员开始从事私营经济活动。另外，可以说钱主借用国营企业的生产设施生产的情况也属于这样的例子。

第三，市场化有助于居民维持稳定的生计。正如前面所说，大部分朝鲜居民在官方工作单位没有得到生活所需的适当水平的报酬。虽然朝鲜当局也意识到面对这一现实的必要性，但事实上这并非易事。



而且，社会保障体系也只是形式上存在，对居民生活没有实质性的帮助。例如，朝鲜虽然也发放退休金，但只有几百元标准。考虑到1公斤大米价格是5000元，可以了解到退休金只是达到形式上的标准。

在这种情况下，居民们最终以通过私营经济活动赚取的收入来维持生活。现在，居民们不再指望国家来负责它们的生计。

最后，市场部门的扩大将为稳定国家财政收入做出贡献。之前说过，朝鲜正在通过手机终端机销售，现代化超市运营等提高收益。另外，金正恩政权想将市场部门编入官方计划部门也与财政有关。如果放在非官方部门，就不能收税，所以想逐渐编入官方部门。

对此，我再说一点，朝鲜当局在市场上也以各种名义征收税金，这对地方政府的财政稳定化起到了不小的帮助。朝鲜当局在综合市场上征收被称为市场税的市场使用费、保管自行车或行李的保管费等，这大体上是地方政府的税收。

关于市场税，我再稍微补充说明一下。在综合市场做生意的商人向市、郡人民委员会下属的市场管理所缴纳的市场税有三种。

首先，为了购买被称为柜台的销售场所要有投入的钱。这个相对来说金额比较大。而且营业的话，每天都要交位置税，这根据柜台规模、位置等不同而有所区别。最后，还有按销售额交纳的钱。

那规模有多大呢？很难准确掌握。但是，据2016年进行的一项研究可以推测，全国400多个市场通过收取市场税，一年的金额最多将达到7000万美元。考虑到朝鲜的经济规模，这绝对是一个不小低的标准。

现在整理一下第5周的课程内容。首先，从讨论市场化究竟是什么的问题开始了讲课。市场化是多种形式的市场形成和膨胀的现象，也是市场机制引进和扩散的现象。而且，过去的20多年间，在朝鲜这两种现象都出现了变化。



第二个考察的是2000年代市场化的发展过程。原来朝鲜也存在一个叫做“农民市场”的市场。但是每十天只开一次，交易的品种也非常有限。但在90年代经历“苦难的行军”后，农民市场变成了巨大的黑市，交易品种也变得多样化等出现了很多变化。在供应中断的情况下，居民们为了生存，以各种方式进行经济活动的过程中，实现了“自下而上的市场化”。

结果7.1措施后的2003年，农民市场变成了合法消费品市场——综合市场。随着市场活动的活跃，积累资本的“钱主”阶层和初级的“雇佣劳动者”也出现了，私人金融也发达了。当然，劳动市场和金融市场以非官方形成，但与以前相比，这就是相当大的变化。

但2000年代中期以后，朝鲜的政策基调开始转向抑制市场。因为对变化的反对和对社会主义秩序动摇的担忧等缘故，政策方向发生了变化。

其结果造成了对市场活动的制约，2009年为了牵制钱主，还实施了货币改革。但是货币改革引起了居民们的反对，留下了通货膨胀等各种副作用，最终以失败告终。市场抑制政策也被撤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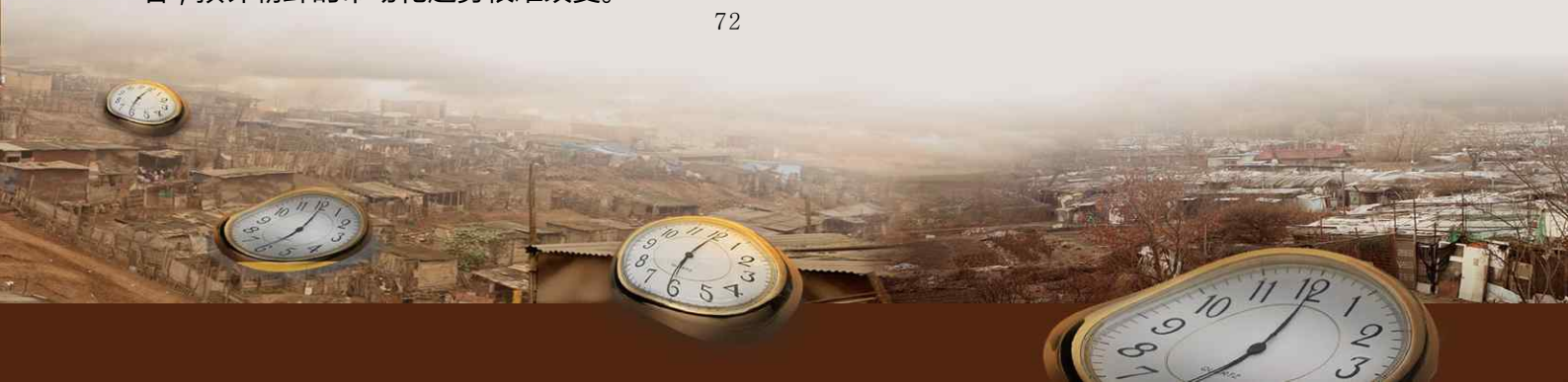
进入金正恩时代后，市场化得到了进一步的推进。综合市场数量大增，各类服务业也蓬勃发展。但是，钱主因为不允许个人所有企业，所以只能借用国营企业的名义或资产做生意，因此私营经济活动的规模扩大十分有限。

在金正恩时代，劳动市场和金融市场虽然发展缓慢，但却呈现出增长的趋势。非官方部门的雇佣劳动聘用更多，私人金融呈现出系统化的态势。另外，还观察到朝鲜当局试图搞活商业银行。

进入金正恩时代后，朝鲜市场部门发展的原因大致有两个。一个是朝鲜当局积极接纳市场部门，另一个是对外贸易扩大。

接着，还调查了朝鲜人收入所得中市场等非官方部门收入所占的比重。而且，可以定论为关于民生经济虽然市场的比重相当高，但从经济整体来看，计划部门仍然占有不少的比重。

另外，2017年以后朝鲜经济状况恶化，朝鲜当局将政策基调改为加强对整体经济的控制和管理，朝鲜的市场化趋势也在放缓。这种局面在制裁持续的情况下维持的可能性很大，但从中长期来看，预计朝鲜的市场化趋势很难改变。



最后，整理了市场化对朝鲜经济的影响。大致介绍了四点。一是资源配置效率提高，二是官方部门所有的闲置人员、闲置设备、资源利用率可以有效提高。三是有利于居民维持稳定的生活，四是有利于稳定国家财政收入。

本次课到此结束，第六讲讨论2000年代以后观察朝鲜经济的第三个内容：朝鲜的对外经济关系。

虽然朝鲜的贸易规模不大，但对外经济部门在朝鲜经济中占有重要性位置，因此学习朝鲜对外经济关系有助于理解朝鲜经济。那么，我们下一讲见。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7.1 조치를 전후한 시기부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던 시장 2가지를 고르시오.
5분

- ① 생산재시장
- ② 소비재시장
- ③ 노동시장
- ④ 금융시장

정답 ①, ②

해설 7.1 조치를 통해서 북한 최초의 생산재 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도입되었으며, 2003년 3월 소비재시장인 종합시장이 도입되었다. 시장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노동시장과 금융시장도 발전했지만, 공식적인 형태의 시장이 출현하지는 않았다.

02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북한 원화 대신 달러화나 위안화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0분

정답 달러라이제이션 또는 외화통용 현상

해설 화폐개혁으로 돈주들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보자, 북한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져 북한 주민들이 북한 원화 대신 달러화나 위안화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달러라이제이션 또는 외화통용 현상이라 한다.



03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10분

북한에서는 개인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개인은 택시를 구입하여 기관이나 기업소에 등록시킨 뒤, 기관이나 기업소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택시를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이 사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를 씌워준다고 한다.

정답 사회주의 모자

해설 북한에서는 사경제 활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주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사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합법성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은 일종의 세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04 다음 중 김정은 시대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5분

- ① 상업은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설립·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 ②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성행하고 있다.
- ③ 종합시장의 수가 증가하였다.
- ④ 관리소에 적을 걸고 식당이나 미용실,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정답 ①

해설 북한에서는 2006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상업은행이 도입되지는 않고 있었는데, 2015년 무렵부터 상업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하여, 평양에만도 30~40개의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05 시장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됨.
- ② 공식 부문에 존재하는 유헴 설비와 인력의 활용도가 향상됨.
- ③ 기업소 임금 수준의 현실화
- ④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도움

정답 ③

해설 시장화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유헴 인력과 설비 활용, 주민 생활 안정화, 재정수입 증대 등의 측면에서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소에서 형식적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고서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주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의 시장 부문이 성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20분)

참고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북한의 시장 부문이 성장한 이유로 우선 북한 당국이 시장 부문을 적극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시장 부문을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은 북한경제에서 시장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진 데에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재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시장 부문이 성장한 또 하나의 이유는 대외무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무역 증가로 구매력이 향상되고, 시장 공급이 늘어났다. 또 화물자동차나 휴대전화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물자와 사람 및 정보의 이동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져 시장 부문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 양태·성격·메커니즘·함의』, 한울아카데미, 2010.
- 양문수,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사 및 정책사적 접근,” 홍민 외,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통일연구원, 2018.
-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산업』, 산업연구원, 2017.
- 조한범 외,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일연구원, 2016.
- 주성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북돋움, 2018.
- 홍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6.
- Kim, Byung-Yeon,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